

202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별고사

문항카드

- 논술(인문) -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인간, 사회, 환경, 자본주의 경제, 생태계, 공존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p><가></p> <p>보도 위에는 레오니아에서 나온 어제의 쓰레기들이 깨끗한 비닐봉지에 싸여 쓰레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눌러 짠 치약, 터져 버린 전등, 신문, 그릇, 포장 재료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보일러, 백과사전, 피아노, 도자기 세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레오니아의 풍요로움은 매일 생산되고 판매되고 구매되는 것보다 매일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버려지는 물건들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곳 청소부들은 천사처럼 환영받습니다. 어제의 잔재를 치우는 그들의 임무는 신심에 영향을 주는 의식처럼 말 없는 존경을 받습니다.</p> <p>레오니아 사람들은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부들은 그것을 도시 밖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매년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은 점점 더 멀리 물러나야 합니다. 버려지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 더미는 점점 더 높아지고 겹겹이 쌓이고 반경을 넓혀갑니다. 그 결과 과거의 파편들이 벗을 수 없는 갑옷처럼 단단하게 굳습니다. 도시는 매일 새로워지면서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 자신을 보존하게 됩니다. 바로 그저께의, 그리고 매달, 매년, 십 년 전의 쓰레기들 위에 쌓이는 어제의 쓰레기 더미로 말입니다. 레오니아를 에워싼 튼튼한 쓰레기 성벽이 산처럼 사방에서 도시를 압도합니다.</p> <p>레오니아의 국경선 너머에는 쓰레기를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는 도시들이 분화구처럼 생긴 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화구들이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오염된 산들의 잔해가 서로를 지탱하거나 중첩되거나 뒤섞이면서 국경을 만들 겁니다. 쓰레기 산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럴수록 붕괴 위험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p>

<나>

한때는 쓰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부유함을 뜻했다. 하인을 여럿 둘 수 있는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뿐더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골치 아플 필요가 없었다. 비슷한 일이 1950년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 쓰레기 대부분을 도시 당국이나 민간 업체들이 직접 수거해서 도시 외곽으로 보내 매립장에 묻거나 소각로에서 태웠고, 음식 쓰레기는 분쇄기에 갈아 하수구로 내려보냈다. 쓰레기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저 멀리 사라져 폐기물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만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냉전 시대에는 ‘버리는 행위가 해방을 뜻한다.’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와 비교하는 용도로 쓰였다. 1954년 역사학자 존 쿠웬호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느 정도의 낭비를 용인하는 것은 부유함의 전제 조건이다. 낭비는 부유함의 결과이자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물건을 산다는 것은 자유를 뜻했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곧 어떤 상품을 구매하느냐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소비의 자유가 경제의 무한한 성장을 보증한다고 믿었다.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성마저도 생활의 편리함이자 자유의 즐거움이었다. 일회용품과 포장재, 그리고 이것들이 나타내는 편리함, 청결함, 노동 절감은 너저분한 옛날 방식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했다. 거침없이 물건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인간의 행위는 20세기의 고유한 현상이며,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옛날 습관은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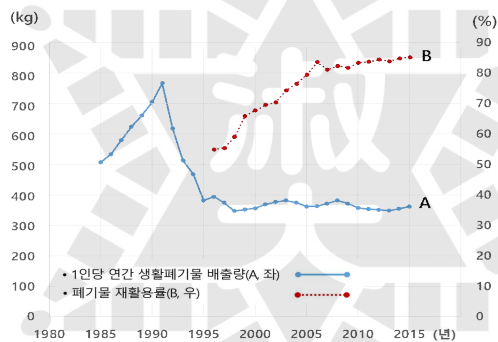
벤스 패커드는 『쓰레기 제조자』에서 ‘계획적인 구식화(planned obsolescence)’라는 용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품이 수명을 다하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만들고, 아니면 낡게 해서 촌스럽게 보이게끔 하는 소비자본주의의 전략을 말한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상품을 끝없이 욕망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13년 포드사는 조립생산 라인의 노동 효율성을 높여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GM사는 1923년부터 매년 모델을 바꿔 출시하는 ‘연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4년 뒤 특정 모델의 신차 판매량에서 포드사를 앞서게 되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수많은 상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다>

지난 근대 산업사회는 인간 역사상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산업자본주의와 소비자본주의는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착취하여 생산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화석연료의 대규모 채굴과 사용을 통해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긴밀히 이루어졌다.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을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 성공적인 물질대사 시스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 구조는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라는 최악의 이중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또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구는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즉 인류세의 행성이 되었다.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등 인간이 초래한 위기가 인간과 생태계를 다시 덮치는 악순환이야말로 인류세의 특징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생태계는 이러한 인간 사회계에 포위된 채 겨우 연명하거나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이제 문제는 ‘인간과 자연으로 이루어진 전체 생명공동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이다.

자연 생태계는 자연순환과 먹이사슬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질대사를 한다. 인간 사회계 역시 자연을 상대로 물질대사를 한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와 달리, 인간 사회계는 자연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변환'하여 '소비'한 후 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물질대사에서 순환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에 대응해야만 한다. 이때 비로소 사회계와 생태계는 상호 순환하며 함께 진화하는 관계가 된다. 즉, 생태계는 사회화된 자연 생태 시스템이 되고, 사회계는 생태계에 의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생태계'라고 부른다.

인류세는 재난을 양산한다.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회복력(resilience)'이 강화되어야 한다. 회복력이란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시스템을 재조직하면서도 시스템 자체의 고유 기능, 구조, 정체성, 피드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 재난과 극한 기상이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환적인 사회경제를 향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만이 아니라 녹색소비를 위한 노력에서처럼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림 1]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활용률의 변화 추이

* 1990년대 들어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오염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판매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등)은 일시와 장소에 따라 배출하면 무료 수거되며,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은 구매한 스티커로 수수료를 부담하여 배출하게 했다.

1-1. <가>에 나타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 따라 <나>에 나타난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해석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간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역량을 확인하고자 한다. 생물종다양성의 축소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 등은 이러한 위기와 함께 이제 일상의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여러 형태의 자본주의 체계는 인간과 자연을 동력 및 자원으로 치환하여 생산과 소비를 무한히 확대함으로써 소위 '선형적인 사회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전파해왔다. 이러한 경제체계에서는 상품 생산과 소비의 총량에 비례하는 폐기물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무관심 속에서 은폐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결과 인류세 위기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지구 행성에 짙게 드리운다. 이에 대해 기후,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는 선형적 경제체계의 문제를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으로서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은 물론 순환적인 사회경제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제도와 정책 도입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규범이나 문화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개개인의 의식 및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시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기]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기]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 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3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4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제시문 <다>
	성취 기준 5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다>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1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탈로 칼비노	민음사	2016	143~145	제시문 <가>	○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수전 스트레서	이후	2010	294~296, 405~420	제시문 <나>	○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창비	2022	227~236, 302~303	제시문 <다>	○
1인당 생활계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률	지표누리	국가데이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그림 1]	○
쓰레기종량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2025		주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2016)

칼비노는 이 책에서 마르코 폴로라는 역사 속 인물을 가상의 영도로 불러내어 인간의 언어, 기억, 욕망 등에 의해 변화하는 여러 도시의 모습을 환상의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제시문은 도시 레오니아의 찬란함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레오니아 사람들의 일상과 태도를 통해 폭로하고 있다. 레오니아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끝없이 욕망하면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로 자신들의 삶을 채워간다. 그 결과 기존의 물건들은 새로운 물건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로 치환된다. 쓰레기는 레오니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져 산처럼 높이 쌓여가고 결국 그것의 붕괴 위험이 다시금 그 도시를 위협한다. 제시문에서 상품 소비 욕망이 초래할 생태계 파괴의 파국적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

제시문 <나>

- 수전 스트레서, 『낭비와 욕망: 쓰레기의 사회사』 (이후, 2010)

전반적으로 이 책은 산업자본주의를 거쳐 소비자본주의로 이행한 미국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한다. 트레이서는 특히 경제의 부침이 발생한 역사적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물신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신화가 폐기 행위와 그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은폐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제시문은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개인들이 쓰레기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폐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긍정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

-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2022)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는 도래하지 않는 미래의 서사가 아니라 여기 지금 모든 지구 거주자들의 현실이다. 이는 인간의 파괴적인 행위가 초래한 자연 생태계 훼손만이 아니라 이 훼손으로 인해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저자는 인간에게서 자연으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행위 결과들을 사회경제 시스템의 환경 폭력이나 에코사이드를 통해 설명한다. 나아가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사회문화와 자연이 분리된 이원론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상호의존적이 공진화를 제안하는 사회-생태계의 이론적 논점들을 제안한다. 제시문은 이러한 내용과 논지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그림 1]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후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활용률의 변화 추이’는 1985년 이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활동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하는 <1인당 생활계폐기물발생량>(1985~2015, A)과 <폐기물재활용률> (1996~2015, B)의 데이터를 각각 반영한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그래프 A는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추진된 쓰레기종량제의 영향으로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프 B는 1996년 추계가 시작된 이래의 <폐기물재활용률>로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주는 국가기록원의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기록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주는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특히 폐기물 배출이 배출자 개인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순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1-1. <가>에 나타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을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본주의 물질화 욕망이 쓰레기에 대한 개인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긍정하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문항이다. <가>에서 레오니아 사람들의 태도는 무한히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것에 비례한 양만큼 발생하는 쓰레기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쓰레기의 무한한 증가가 레오니아 도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미래적인 사실이다. <나>는 소비자본주의 시대 미국에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적 책임이 은폐되는 원인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폐기 행위 자체가 자본주의의 이념적 관련물이자 물질적 풍요의 상징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 또한 공공 시스템에 전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비가시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소비 전략이 개인의 상품 구매 욕망을 자극할 때 증가하는 상품 구매에 비례해서 폐기물 또한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아래 채점 기준에 설명된 내용을 포함해서 이러한 취지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다>의 논지에 따라 <나>에 나타난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을 해석하시오. (600±60자)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계의 급격한 과잉 팽창 결과로 설명하려는 것이 인류세 담론의 일부 주장이다. 이 담론에는 지난 세기 인간중심적 세계가 극단적으로 추구해온 선형적인 경제 성장 논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인류세 담론의 논리에 따르면 자연은 자원의 대상으로 의미가 제한되어 오직 개발과 채굴의 착취에 노출된다. 자연의 훼손은 지속되고 누적되는데, 그 영향은 생물다양성의 상실만이 아니라 기후 난민의 인권 문제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도 미친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생태계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내용에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본주의의 근본적 프로세스를 비판하는 것이다. 생태계 파괴 및 그것의 극복 문제가 인간의 사회경제 문제와 분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물론 순환 경제의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생태계가 피력하는 기본 논지이다. 나아가 그 실천은 거버넌스와 같은 거시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995년 처음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1]의 해석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점은 위의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식과 실천의 중요성이다. 그래프 A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배출자 개인에게 있으며, 나아가 순환 경제를 위한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노력과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 B는 1996년 이후 배출량의 일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자원 순환 실천이 정책에 대한 개인적 순응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가>에서 레오니아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태도와 도시의 문제 상황 기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레오니아 사람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이 새로운 상품을 대체함으로써 풍요해진다고 여긴다. ② 레오니아 사람들은 계속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다. ③ 도시 밖으로 계속 밀려난 쓰레기는 점점 높은 쓰레기 산이 되어 언제 붕괴할지 모른 채 레오니아를 위협에 빠뜨린다. <p>【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한 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나>는 소비자본주의가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것만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 행위도 권장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에서 배출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것을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에 전가하고 있음을 통해 강조된다. ⑤ <나>는 '계획적 구식화'의 전략에서처럼 소비자본주의가 상품의 끝없는 소비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과도한 상품 소비와 증가한 폐기물이 도시 환경을 파괴하리라 예상한다.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다>의 논지 기술】</p> <p>① <다>는 근대 이후 산업 및 소비자본주의가 자연환경을 착취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와 생태계에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생물다양성 파괴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p> <p>②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계가 자연 생태계와 달리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 변환, 소비, 배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순환하는 물질대사를 하기 때문이다.</p> <p>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계와 자연 생태계가 상호 순환하고 함께 진화하는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만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p> <p>【제시문 <나>의 문제 기술】</p> <p>④ <나>의 내용에 제시된 문제는 무한한 상품 소비가 경제 성장을 보충한다는 믿음을 조장한 소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무한 발생과 배출을 긍정하면서 마침내 환경이 파괴된 미래 사회의 위기를 예상케 한다는 점이다.</p> <p>【[그림 1]의 해석】</p> <p>⑤ 그래프 A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하였으며, 그래프 B는 이러한 실천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률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사회-생태계의 관점에서 기후 급변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대응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중요성이 잘 드러내고 있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레오니아 사람들은 매일 버려진 물건이 신상품으로 대체될 때 풍요해진다고 여기며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무관심하다. 레오니아의 국경으로 계속 밀려난 쓰레기는 붕괴할 만큼 높은 쓰레기 산이 되어 도시를 위태롭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끝없이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자본주의가 쓰레기 배출마저도 권장하는 데서 비롯된다. 쓰레기에 대한 책임마저도 배출자로부터 면제하고 처리 전문가와 시스템에 전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본주의는 '계획적 구식화' 전략의 경우처럼 과도한 상품 생산과 그에 비례한 폐기물 증가를 낳아 결국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28자)

1-2.

근대 이후 산업 및 소비자본주의가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와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은 생물다양성 파괴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경제 성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계가 자연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추출, 변환, 소비, 배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순환하는 물질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와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계와 자연 생태계가 상호 순환하고 공진화하는 사회-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여러 정책의 실행과 함께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인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생태계는 무한한 상품 소비가 경제 성장을 보증한다는 믿음을 조장한 소비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무한한 발생과 배출을 긍정하면서 초래할 위기에 대한 비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그래프 A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으로써 개인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그래프 B는 이러한 개인적 실천이 순환 경제를 위한 자원 재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사회-생태계의 관점에서 기후와 생태계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실천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653자)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행복, 과학 기술, 감시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p><가></p> <p>왕세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행복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솔로코프는 영화관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놓인 안락한 소파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 곧 영화가 시작되었다. 다름 아닌 솔로코프 자신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다. 그의 개인 소장품과 여러 매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영상을 인공지능이 모아 편집한 영화였다. 솔로코프는 짜깁기한 단조로운 영화에 싫증을 느끼고 반쯤 눈을 감았다. 그러는 동안 표정, 체온, 심박수, 혈압, 생체 신호, 그리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 수치 등 모든 생체 지표가 그가 앉은 평범해 보이는 가죽 소파를 통해 철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영화가 끝나자 화면에 여러 질문이 나타났다. 시중드는 로봇 카린이 그에게 읽으라는 손짓을 했다.</p> <p>“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가?” 솔로코프는 기분이 상해서 카린을 바라봤다. “무슨 이따위 바보 같은 질문이 다 있어? 내가 이걸 대답해야 해?”</p> <p>“솔로코프 씨, 행복이 매우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당신의 기본적인 상태를 더 잘 이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단계로 된 척도를 사용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하시길 바랍니다.”</p> <p>솔로코프는 로봇을 향해 “바보 같군.”이라며 투덜땀으나 이내 다시 화면을 보며 응답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모양이었다. 그가 포기하려 하기 직전에 질문이 끝나고 머리 위 조명이 켜지면서 카린이 말했다.</p> <p>“축하합니다, 솔로코프 씨. 이제 함께 지내실 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솔로코프 씨도 좋아하실 겁니다.”</p> <p>...(중략)...</p>

화려하게 차려 입은 아킬라 공주가 은수저로 와인잔을 두드려 손님들을 주목하게 했다. 우선 자신의 오빠인 왕세자가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왕세자는 이 행복의 섬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한 책임자이기도 했다. 공주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왕세자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기술도 좋은 게 아니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는 기술의 힘을 통해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길을 찾고자 이 섬을 설계했습니다. 이 섬에 오신 여러분은 왕실이 이룩한 이 전례 없는 과업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공주의 또렷한 영어 악센트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다소 차갑게 느껴졌다. 솔로코프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공주님, 저는 왕세자의 비전과 결단력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도파민이 뇌의 보상체계를 통제한다는 것, 또 옥시토신이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고 엔도르핀이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바는 불안을 잠재우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북돋우고 아드레날린은 활력을 채워주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감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신경전달물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끼어들었다. “에밀리 디킨슨이 ‘저 작은 돌멩이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썼고 레이먼드 카버는 ‘행복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 사람들은 모두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다만 기술과 실천력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피곤해 보이는 여배우가 물담배 연기를 한껏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뿜으며 말했다.

아킬라 공주가 모두의 의견에 인내심 있게 고개를 끄덕인 후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1990년대부터 행복이라는 주제와 그 분야 연구에 관심을 둔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협력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행복은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져 그 연구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행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노라 주장하는 연구는 실증주의 학계에서 큰 의심을 사곤 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복이 상대적이라면 객관적인 경제 개선과 부양이 반드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행복이 상대적이라면 감정과 기분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이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혹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행복처럼 까다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마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서툰 것처럼 행복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데 서툰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1990년대 내내 많은 경제학자와 심리학자가 서로 손을 잡고 설문 조사, 가치 척도 등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고 알려진 방법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옥스퍼드 행복 척도’나 ‘삶의 만족도 척도’ 같은 것들이 그 예다. 그리

고 각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총생산(GNP)'과 비슷하게 국민 행복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모아 '국민총행복(GNH)'을 지표화하였으며, '경제 웰빙 지수'나 '인간 개발 지수' 등을 공공정책의 효과와 경제 발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행복의 다양한 수준들은 '고통의 양에 대한 쾌락의 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행복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것, 나아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실증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완전히 상대적일 수는 없다. 도리어 행복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가능성과 관련하여 엄청난 낙관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낙관론 덕에 마음과 몸, 뇌에 대한 세심한 과학적 관찰만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와 공리주의의 야망이 재점화되었다. 행동주의 경제학자나 행복 전도사들이 드디어 인간의 동기 부여와 만족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할 때마다 새로운 심리 감시가 암시되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1960년대 처음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에 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려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 보고할 때, 그 보고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의심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자기 감시, 그리고 데이터 분석학은 이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사람들의 말을 본인들은 모르게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다면, 혹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행복 상태를 실시간 수치로 표현해 알려줄 수 있다면, 연구자들은 굳이 설문 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보고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빅 데이터는 인간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사람의 신체, 얼굴, 행동을 추적하여 기분을 읽어내는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감정을 판별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 행복의 조건과 본질에 관한 과학적 탐구로 시작했던 작업이 한순간에 행동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 인간의 변영과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경영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나아가 제시된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작정 따르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과 육체, 그리고 세상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작업은 사람들에게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결정을 예측하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2-1.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의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과 한계를 논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우리는 흔히 행복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한다. 행복을 이렇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이해한다면,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오직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되고, 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야 할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행복감을 정량화하고 측정하려는 경제학자들이나 심리학자의 시도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량화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오늘날 첨단 기술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들을 들여볼 수 있게 되면서 행복감을 측정하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심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수험생이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영역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화시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 노력이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파생적 위험 낳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기]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AI 2041	리카이푸 · 천치우판	한빛비즈	2023	433~441	제시문 <가>	○
해피크라시	에바 일루즈 · 에드가르 카바나스	청미	2021	53~61	제시문 <나>	○
행복산업	윌리엄 데이비스	동녘	2015	252~267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리카이푸 · 천치우판, 『AI 2041』 (한빛비즈, 2023)

<가>는 기술의 발전에 의지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시도로서 ‘행복의 섬’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입장과 그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왕세자는 첨단 기술에 의지해 사람의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제시문 속 시인은 행복은 사람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시문 <나>

- 에바 일루즈 · 에드가르 카바나스, 『해피크라시』 (청미, 2021)

<나>는 1990년대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행복에 대한 과학을 설명한다. 이전까지는 행복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데 반해, 행복을 순수하게 주관적인 감정으로만 보면 인간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근거를 잃게 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감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설명한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행복은 적절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이다.

제시문 <다>

- 윌리엄 데이비스, 『행복산업』 (동녘, 2015)

<다>는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인간의 심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개인의 내밀한 심적 상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그것을 토대로 한 통제와 문제다. <다>는 이렇게 행복을 정량화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자칫 사람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논제의 구성

2-1. <나>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의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2-1번 문항의 요구 사항은 <나>의 내용에 의지해서 <가>의 왕세자와 시인이 행복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의 내용에 따르면,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다. 한 관점에서는 행복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이어서 객관적인 측정이나 파악이 어렵다고 본다. 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행복을 상대주의적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적절한 방법들을 동원한다면 행복 역시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본다. <가>의 시인은 행복을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서 있는 데 반해, 왕세자는 <나>의 경제학자나 심리학자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감정으로 보고,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나>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서 왕세자와 시인의 관점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복을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받아들이는 전제, 즉 행복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의 유무다.

2-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과 한계를 논하시오. (600±60자)

2-2번 문항은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오늘날의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이점과 위험이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다.

<가>의 왕세자가 추진하는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체 신호나 감정 등을 측정하고,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들을 토대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에서 나온 것처럼 행복을 상대적이고, 그래서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삶의 객관적인 여건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근거를 잃게 되고, 심리학 역시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의 심리와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근거를 실증해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노력이 첨단 기술과 만날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심적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감시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적 노력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그것이 도리어 인간을 통제하는 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나〉에 나오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입장의 요약과 구별】</p> <p>① 〈나〉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 입장에 따르면, 행복은 상대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행복을 측정하기는 어렵다.</p> <p>② 반면 다른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법만 동원된다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본다.</p> <p>【〈가〉에서 왕세자와 시인의 입장 구별】</p> <p>③ 〈가〉의 왕세자는 행복의 섬에 초대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다시 말해 왕세자는 〈나〉에서 말하는 행복이 측정 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p> <p>④ 반면 시인은 디킨슨과 카버의 말을 인용해 행복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화의 자연스러운 맥락에 비추어 보면 〈나〉에서 말하는 행복이 상대적이며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유사하다.</p> <p>【왕세자와 시인의 입장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p> <p>⑤ 〈나〉에서 행복이 측정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는 적절한 측정 방식의 유무다. 이는 왕세자와 시인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다. 시인이 행복을 그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 보는 반면, 왕세자는 생체신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⑤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⑥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였으나 ③, ⑥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가 부족한 경우 (〈나〉의 내용 파악을 잘못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의미 설명】</p> <p>① (가)의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다.</p> <p>【(나)를 활용한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이점 설명】</p> <p>② (나)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을 그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경제학이나 심리학의 다양한 시도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잃게 된다.</p> <p>③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생체 신호 측정,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젝트는 인간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실증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의지해 인간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인간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한다.</p> <p>【(다)를 활용한 행복의 섬 프로젝트의 한계 설명】</p> <p>④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행복에 관한 자기 보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해 줄 수단으로서 빅 데이터나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은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새로운 감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p> <p>⑤ 본래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이 더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면, 프로젝트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위험한 전략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은 충족하였으나 ④, ⑤(프로젝트의 한계)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③(프로젝트의 이점)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⑤를 충족하였으나 ②,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였으나 ③, ⑤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②, ③, ④, 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의 내용이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2-1.

〈나〉에는 행복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나온다. 하나는 행복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방법이 동원된다면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의 ‘행복의 섬’에서는 생체 신호의 기록,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시인은 그러한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행복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시인이 〈나〉에서 나온 행복에 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라면, 왕세자는 행복도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313자)

2-2.

인간은 언제나 행복하기를 꿈꾼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시도이자 노력이다. 만약 〈나〉에 나온 것처럼 행복이 그저 상대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측정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면, 심리학이나 경제학 연구를 통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그 의미와 객관적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행복의 섬’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할 기술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오늘날 빅 데이터나 SNS와 같은 첨단 기술과 만날 때, 사회를 감시 사회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다〉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에 관한 자기 보고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을 감시하고 조작하는 통제 기술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섬’ 프로젝트는 인간을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인간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606자)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도시화, 공간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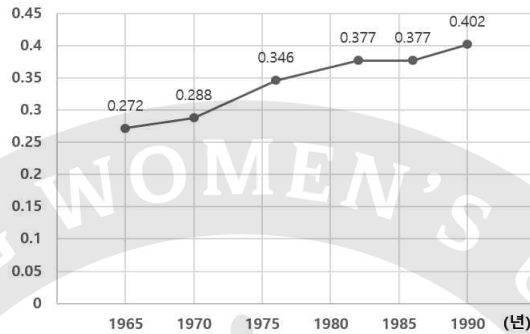
장병만 씨의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의 어느 작은 마을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부터 줄곧 농사를 지어온 농부성이었다. 1,200평 정도의 논과 400평 정도의 밭농사였는데, 그나마 자기 땅이 아니라 소작농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농사일이 너무나 힘들고 뼈빠지게 일해 봐야 빚밖에 남지 않는 희망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1964년 그의 나이 서른한 살 때 식솔을 이끌고 무작정 상경을 감행했노라고 했다.

“이불 보파리 하나만 달랑 들고 야간열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때 참 청운의 꿈이 있었지요, 서울에 오면 뭔가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그는 다른 이농민들이 그렇듯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 판잣집이라도 얻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 행세를 하였지만, 그는 셋방살이로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무수히 많은 직업들을 전전했다. 막노동은 물론이고 전철이나 버스칸에서 때 빼는 약이니 지갑이니 하는 것을 파는 세일즈 일도 해보았고, 떠돌이 약장사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잘만 하면 목돈을 만진다는 소문에 복덕방 거간꾼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자기가 들어가 살 수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의 집을 매매하듯이 열정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곤 했던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품었던,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리라는 꿈, 이를테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생을 벗어나고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가슴 벅찬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새로운 인생은 오지 않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늘 제 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후배가 그에게 말했다. “이미 엄청나게 확대되고 단단해진 이 자본주의 체제가 그런 영성하기 짝이 없는 장 선생님의 꿈을 허락

해줄 리가 없는 거지요.” 무심코 내뱉은 후배의 말에, 판자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는 결정에 따라 그곳마저 빈손으로 쫓겨날 상황에 처한 장병만 씨는 두 눈으로 분노를 쏟아낼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림 1]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 추이

* 소득 지니계수 :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계수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해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짐.

학력 연령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	전체
전체	147,571	194,525	245,028	317,214	200,274
20대	137,073	181,272	198,858	265,357	182,193
30대	141,786	192,460	248,718	310,692	201,997
40대	146,862	205,867	288,927	335,550	205,946
50대	165,713	255,101	323,960	418,467	233,320

[표 1] 1985년도 연령대/학력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 원)

<나>

고층 건물은 도시 공간에서 부자들이 빈자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젠트리파이어 (gentrifier),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오래된 주택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일이며, 그 연장선에서 고층 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계급 전쟁의 무기로 기능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무기가 정당화되는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로 잘 알려진 지리학자 닐 스미스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독특하게 규정했던 프런티어(frontier)의 개발이 서부에서 동부 도시로 이동해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적한다. “서부의 평원과 산맥, 숲에 적용되던 황야와 프런티어의 이미지는 이런 장소들이 멀끔하게 문명화되고 난 20세기 후반기에는

미국 동부 도시에 더 많이 적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교외화 경험의 일부로서 미국 도심들은 '도시의 황야'로 인식되었다. 즉 과거 미국 도심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도 질병과 무질서, 범죄와 부패, 마약과 위협의 온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서부의 '원시적이고 위험하며 야만적인' 황야가 그랬듯이 '도시의 황야' 역시 발전과 확장의 긍정적인 기대가 얽힌 프런티어로 대체되어야 했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에는 프런티어 이미지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으며, "프런티어 담론은 18, 19세기 서부에서든, 20세기 말 도심 지역에서도 정복 과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말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런티어의 이미지에 호소하고 프런티어가 "야만과 문명의 접점"으로 불릴 때, 고층 건물이라는 젠트리피어는 '야만'을 몰아내고 '문명'을 도심에 끌고 오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빈자를 몰아내고 부자를 데려온다. 황폐=쇠퇴=위험=야만=정체=빈자로 가득 찬 도시는 풍요=활력=기회=문명=발전=부자로 재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층 건물이 상징하는 미래적 이미지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즉 고층 건물은 그 자체로 미래로 향하는 발전의 이미지를 도시에 이식함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한다. 고층 건물은 이렇게 빈자를 내쫓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부자들이 도피하는 곳이다. 도시의 공중은 사유화되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밀바닥' 삶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발밑 도시를 심미적인 배경으로 소비할 수 있다.

<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이 대규모 도시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로버트 모제스이다. 그는 20세기 뉴욕 도시계획의 중심인물로,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마스터 빌더(Master Builder)'로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모제스의 계획은 뉴욕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중심의 현대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브루클린-배터리 터널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며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트라이버러 다리는 맨해튼, 브롱크스, 퀸스를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모제스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근대주의적 도시개발사업자지만 이러한 빛나는 성과 뒤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제스의 재개발은 수천 가구의 강제 이주를 초래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크로스 브롱크스 고속도로 건설로 약 5,000 가구가 철거됐고,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의 거주하던 지역이 파괴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강제 이주는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뉴욕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모제스의 뉴욕 재개발은 1960년대 제인 제이콥스와의 대립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제이콥스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이자 작가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모제스의 도시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예로 그녀는 도시녹화사업을 설명한다. 공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공원을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다른 타입의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일 아침저녁으로는 회사원이 왕래하고 점심시간에는 런치박스를 들고 벤치를 찾는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주부가 찾아오거나 학교가 끝날 시간에는 아이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밤에는 변화가에 나온 사람들

이 모여들거나, 휴일에는 버스킹 연주와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은 일상적으로 공원을 가로지르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원이 주거시설과 오피스, 상가 등 동선의 일부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사람들의 활기도 중요하다. 평일 점심때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피스가의 공원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한산해져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즉 도심부에 녹지를 늘린다는 배려만이 아니라 근처에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이나 생활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다. 제이콥스는 불도저로 슬럼을 일소하여 넓은 도로와 고층단지 사이에 조성한 공원은 그것이 아무리 넓고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시설물이 될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제이콥스는 모제스 방식의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콥스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 소규모 상점,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도시의 활력을 만든다고 믿었다.

1-1. <가>의 ‘장병만 씨의 꿈’에 대해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에 보이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 평가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도시 계획 및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는 1960년대의 이촌향도와 도시화 과정을 배경으로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계층 상승 욕망을 묘사하고 있으며, <나>는 도시 재개발의 일종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미국의 프론티어에 빗대어, 부자가 빈자를 쫓아내어 부자와 빈자 사이의 계층 분리와 고착화 과정으로 기술한다. <다>는 도시계획과 도시 재개발을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림]과 [표]를 통해 <가>의 등장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해석하고 그 인물의 꿈이 좌절될 가능성을 설명하며, <다>에서 주장하는 인간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가>에서 보이는 빈민촌의 아파트 단지로의 변화와 <나>에서 보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문들 사이의 관련성 파악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 기준 1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관련 제시문 <가>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 기준 1	[12사문04-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관련 제시문 <가>, <나>
	과목명: 한국지리		
성취 기준 1	[12한지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녹천에는 똥이 많다	이창동	문학과지성사	1992	20~21	제시문 <가>	○
도시 공간의 SF화	권범철	문화과학사	2022	136~138	제시문 <나>	○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제인 제이콥스	그린비	2010	140~152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창동, 「진짜 사나이」,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지성사, 1992)

제시문 <가>는 이창동의 연작 소설집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수록작 「진짜 사나이」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소설은 한국의 1960년대 이촌향도와 도시화의 전형적인 과정을 배경으로 하면서 소설의 주인공인 장병만 씨의 사례를 통해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즉 빈부의 계층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장병만씨는 빈농 출신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1960년대 30대 나이에 서울로 상경한다. 소설에서 그는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고 사회의 하층 직종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판자촌의 세입자이기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의 꿈은 가난에서 탈피하여 내집 마련과 같은 희망찬 미래, 즉 개인의 노력을 통해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상승하는 것이지만 저학력, 저소득자인 그가 확대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러한 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된다.

제시문 <나>

- 권범철, “도시 공간의 SF화”, 『문화과학』 2022 가을호(문화과학사, 2022)

제시문 <나>는 고층 건물을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고층 건물의 상징적 의미를 미국의 ‘프런티어’ 이미지와 접속시켜 프런티어 담론이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의미를 지녔듯이, 고층 건물이 ‘도시의 황야’를 몰아내는 발전과 확장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이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의미 부여되는 것은 빈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이 글의 저자는 이처럼 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자가 빈자를 내쫓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그 정복 과정을 합리화하는 발전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다>

-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제시문 <다>는 인간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재개발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작가이자 시민운동가인 제인 제이콥스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뉴욕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의 중심인물이었던 로버트 모제스의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 논리가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저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제인 제이콥스의 지역 거주민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모제스식의 '불도적'식 도시개발은 그러한 인간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오는 개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 논제의 구성

1-1. <가>의 '장병만 씨의 꿈'에 대해 [그림 1]과 [표 1]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가>의 '장병만 씨의 꿈'

- 장병만 씨의 꿈 : 장병만 씨는 빈농 출신으로 1960년대 30대의 나이에 이촌향도하여 도시 빈민층에 편입된 인물. 장병만 씨는 저학력에 사회의 저변 직업을 전전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계층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함.
- 소설의 배경 설명 : <가>에서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 계층적 구별이 '도시 빈민층에 편입'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개발논리를 설명한다.

[그림 1]의 설명

- [그림 1]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밝히고 있다. 1965년 0.272에서 1990년 0.402로 상승하여 25년 사이에 0.130만큼 큰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의 설명

- [표 1]은 1985년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비교로 볼 때, 전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0대 연령에 대비해 보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 차이는 2.5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표 1]을 장병만 씨의 사례에 적용

- [그림 1]과 [표 1]은 장병만 씨에게 적용되는 정보들이다. [그림 1]로 볼 때, 장병만 씨가 상경한 이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로 볼 때, 1985년에는 장병만 씨가 50대에 속하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용할 때 개인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장병만 씨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에 보이는 ‘도시 재개발’에 대해 평가하시오.

(600±60자)

<다>의 논지

- 로버트 모제스식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은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그 부작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제인 제이콥스는 인간적 관계와 생활의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이상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비판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가>에서 묘사하는 도시 재개발

-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촌향도와 빈부 계층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희생을 강제당하는 묘사를 통해 계층 차이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에서 기술하는 도시 재개발

- <나>에서는 고층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서,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외형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자의 공간적 구별을 고착시키고 부자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 평가

- <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가〉의 '장병만 씨의 꿈' 설명】</p> <p>① 장병만 씨는 빈농 출신으로 1960년대 30대의 나이에 이촌향도하여 도시 빈민층에 편입된 인물. 장병만 씨는 저학력에 사회의 저변 직업을 전전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계층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함.</p> <p>② 소설의 배경으로, 〈가〉에서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심과 주변 사이에 계층적 구별이 '도시 빈민층에 편입'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적 개발논리를 설명하고 있음.</p> <p>【그림 1】의 설명】</p> <p>③ [그림 1]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지니계수를 통해 밝히고있다. 1965년 0.272에서 1990년 0.402로 상승하여 25년 사이에 0.130만큼 큰폭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줌.</p> <p>【표 1】의 설명】</p> <p>④ [표 1]은 1985년도 연령대별, 학력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른 비교로 볼 때, 전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50대 연령에 대비해 보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월평균소득 차이는 2.5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p> <p>【그림 1】과 [표 1]을 장병만 씨의 사례에 적용】</p> <p>⑤ [그림 1]과 [표 1]은 장병만 씨에게 적용되는 정보들이다. [그림 1]로 볼 때, 장병만 씨가 상경한 이후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악화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표 1]로 볼 때, 1985년에는 장병만 씨가 50대에 속하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적용할 때 개인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려는 장병만 씨의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다>의 논지】</p> <p>① 로버트 모제스식의 도시계획 및 도시 재개발은 자본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그 부작용으로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p> <p>② 제인 제이콥스는 인간적 관계와 생활의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이상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비판한다. 제이콥스는 공원의 예를 통해 도시의 생명력은 다양한 계층과 활동이 공존하는 일상적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p> <p>【<가>에서 묘사하는 도시 재개발】</p> <p>③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촌향도와 빈부 계층 차이를 보여주며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가 희생을 강제당하는 묘사를 통해 계층 차이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의 확장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p> <p>【<나>가 기술하는 도시 재개발】</p> <p>④ <나>에서는 고층 건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서,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통해 부자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외형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빈자의 공간적 구별을 고착시키고 부자의 승리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p>	

<p>【<다>의 논지에서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 평가】</p> <p>⑤ <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있다.</p> <p><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p>	
<p>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p>	<p>1등급</p>
<p>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p>	<p>2등급</p>
<p>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부족한 경우</p>	<p>3등급</p>
<p>⑤를 충족하였으나,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p>	<p>4등급</p>
<p>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p>	<p>5등급</p>
<p>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개가 부족하며,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p>	<p>6등급</p>
<p>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p>	<p>7등급</p>
<p>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p>	<p>8등급</p>
<p>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p>	<p>9등급</p>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1.

〈가〉에서 장병만 씨의 사례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의 전형적인 것으로 중졸 학력의 그는 도시 빈민층에 편입되었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그곳에서마저 쫓겨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의 꿈은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림 1]에서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에서는 장병만 씨가 속한 50대의 학력별 임금격차가 중졸이하에 비해 대졸이상이 2.5배 이상을 보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장병만 씨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318자)

1-2.

〈다〉에서 제인 제이콥스는 로버트 모세스식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대규모 재개발과 강제 이주를 초래하며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파괴한다고 비판하며,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며 일상적 관계를 이어가는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가〉에서 장병만 씨의 묘사는 이촌향도와 도시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학력 저소득층의 도시 생활자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없이 축출되는 계층 불평등의 심화 과정을 보여준다. 〈나〉의 고층건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부자들은 도심의 상층부로 올라가며 ‘밀바다 삶’을 심미적 배경으로 소비하고, 빈자들은 점점 도시에서 밀려난다. 고층건물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에 대해, ‘야만을 몰아내는 문명화’라는 프런티어 담론을 결부시키는 것은 “불도저식 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이다.

따라서 제이콥스의 논지에서 보면 〈가〉와 〈나〉의 도시 재개발은 자본주의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계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진정한 발전은 외형적 고도화나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도시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여 도시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데에 있다. (607자)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독서,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비유, 출세, 욕망, 장자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p><가></p> <p>우언(寓言)은 짧고 날카로워 문학 속의 기마병이다. 동물이나 허구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빗대어 간결하게 표현한다. 중국의 문인 유종원이 남긴 우언은 비록 양은 많지 않으나 전형적인 형상을 이루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사회 현상과 인간의 속성을 신랄하게 묘사했다. 그의 대표작인 <부판전>에서 풍자하는 인간 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보자.</p> <p>부판(蝨蟻)이라는 놈은 짐을 잘 지는 작은 벌레이다. 길을 가다가 무슨 물건이라도 맞닥뜨리면 주워서 머리로 들어 올려 등에 진다. 물건이 무거워 지극히 힘들어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한다. 그 등은 꺾끄러워 물건들이 쌓이면 흩어지지 않아, 끝내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모습을 가련하게 여겨 그 짐을 치워 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어도, 또다시 가져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 등에 짊어진다. 게다가 그 높은 높은 곳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하여 힘이 다 빠질 때까지도 멈출 줄을 몰라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비록 덩치가 커다란 사람이라는 존재들도 이 작은 벌레의 지혜와 같다.</p> <p><나></p> <p>“내가?” 나는 웃었다.</p> <p>“예, 형님하고 형님 동기 중에서 조(趙)형 하고요.”</p> <p>“조라니,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애 말인가?”</p>

“예, 그 형이 재작년엔가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지금 여기 세무서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서로 소식이 별로 없었지. 그 애가 옛날엔 여기 세무서에서 직원으로 있었지, 아마?”

“예”

“그거 잘됐군. 오늘 저녁엔 그 친구에게나 가볼까?”

친구 조는 키가 작았고 살결이 검은 편이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내게 곧잘 했었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술 한 잔씩을 마시고 나서 세무서장이 된 조의 집을 향하여 갔다. 거리는 어두컴컴했다.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냇가의 나무들이 어슴푸레하게 물속에 비춰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게 여전하군.” 내가 말했다.

“그렇까요?” 후배가 웅얼거리듯이 말했다.

조의 응접실에는 손님들이 네 사람 있었다. 나의 손을 아프도록 쥐고 흔들고 있는 조의 얼굴이 옛날보다 윤택해지고 살결도 많이 하얘진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어서 자리로 앉아라. 이거 원 누추해서... 빨리 마누랄 얻어야겠는데...”

그러나 방은 결코 누추하지 않았다.

...(중략)...

집에는 세무서장인 조가 보낸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세무서로 좀 들려주세요.’ 아침밥을 먹고 나는 세무서로 갔다. 이슬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나는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조는 러닝샤쓰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카바를 씌운 회전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때는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나?” 내가 물었다.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웅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의 도장을 받아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다>

김 군은 나의 벗이다. 그가 시냇가의 푸른 소나무 숲속 산기슭 한 곳을 구해 조그만 정자를 지었다. 각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가운데는 비워두고 풀로 지붕을 얹고 대나무를 엮어 벽을 만드니, 멀리서 보면 깃으로 지붕을 꾸민 그림배 같았다. 이 정자를 휴식할 곳으로 삼고서 선생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는 장주(莊周)의 우언(寓言)을 들어보았는가. 장주가 ‘옛날에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햇빛 아래에서 도망쳤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더니만 나무 그늘에 들어가자 그림자가 돌연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개 그림자라는 것은 한결같이 사람의 형체를 따르는 것이니,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그림자도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 고개를 치켜들면 그림자도 고개를 치켜들며, 그 밖의 오고가는 행동을 오로지 형체가 하는 대로 따른다. 그러나 그늘 아래와 밤에는 없어지고 불빛 아래와 낮에는 살아나니, 사람의 처신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이 태어날 때 조물주에게서 형체를 받으니, 조물주가 사람에게 장난치는 것이 어찌 형체가 그림자를 부리는 것 정도에 그치겠는가.

그림자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것은 형체의 처분에 달렸고, 사람이 천변만화하는 것도 조물주의 처분에 달렸다. 사람된 자는 당연히 조물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니 내가 무슨 간여할 것이 있겠는가. 아침에 부유했다가 저녁에 가난해지고, 예전에 귀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모두 조물주가 풀무질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이다. 나의 한 몸으로 본다면, 예전에 높은 관을 쓰고 조정을 출입했다가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숲과 골짜기를 거닐고, 조정의 어진 신하와 단절하고 고라니며 사슴과 짝이 되었다. 이 모두가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되는데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니, 이에 대해 무슨 기뻐하고 성낼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그림자는 진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선생의 경우는 인생의 실의와 득의가 자신에게 달렸으니 세상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밝은 시대를 만났으면서도 재능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이 대답하기를,

“흐름을 타면 가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치는데, 가고 그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산림에 들어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비단 그림자를 실 뿐만이 아니라 서늘한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벗이 되어 까마득히 먼 들판에 노닐고 그늘 속으로 사라지면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터이니, 식영(息影, 그림자를 숨)으로 이름하면 안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김 군이 말하기를,

“이제야 선생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적어 주시면 정자의 이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1.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혜’를 요약하고 <나>의 한 인물에 적용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에서 보이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각 인물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논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학의 함축적 의미를 읽어 내는 힘, 문학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지닌 서로 다른 가치관을 파악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가〉에는 우연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고 이에 맞춰 〈부판전〉이라는 실제 작품을 하나 수록하였다. 작품은 부판이라는 별레의 습성을 두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끝없는 소유 욕망과 출세 욕망’을 비유하고 있다. 1번 문항에서는 이 습성들이 〈나〉에 나타난 인물과 어떤 유사성을 묻고자 하였다.

〈나〉와 〈다〉에는 우연들이 하나씩 삽입되어 있다. 이 우연들은 서로 반대되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운명에 대한 관점들은 작품 속의 각 인물들이 삶의 태도의 준거가 되고 있다. 〈나〉에 나타난 조의 삶의 태도, 〈다〉에 나타난 선생의 삶의 태도를 이와 연관짓고, 서로의 시각으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2번 문항에서 묻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성취 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나〉
	과목명: 독서		
	성취 기준 1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나〉, 〈다〉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 기준 1	[12윤사02-06] 노자와 장자 사상을 탐구하여 도가적 세계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도교의 성립 및 한국 고유사상과의 융합을 조사하여 우리 전통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중국우언문학사	천푸칭	소나무	1994	235	제시문<가>	○
다산성-김승옥 대표작품선	김승옥	한겨레	1995	292~316	제시문<나>	○
식영정기의 우언 글쓰기와 문학사적 의의	조상우	온지학회	2007	111~112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천푸칭, 『부판전』, 『중국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제시문 <가>는 천푸칭의 『중국우언문학사』에 수록된 유종원의 「부판전」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우언은 동물이나 허구의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인간의 삶에 대한 풍자와 교훈을 표현하고자 하는 글로, 제시된 우언은 부판이라는 작은 별레가 가진 습성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글이다.

제시문 <나>

- 김승옥, 『다산성 - 김승옥 대표작품선』 (한겨레, 1995)

제시문 <나>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일부이다. 주인공은 고향 무진으로 잠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기간에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동창 ‘조’를 만나게 된다. 세무서원이었다가 고등고시를 통과하여 세무서장이 된 ‘조’는 부와 출세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자기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그려가며 성공한 소년의 우언을 좋아하는 ‘조’는 더 많은 부와 높은 지위를 위해 실세 없이 일하고 또 그것을 즐긴다. 제시문은 이러한 ‘조’의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발췌되었다.

제시문 <다>

- 조상우, “식영정기의 우언 글쓰기와 문학사적 의의”, 『온지논총』 16집 (온지학회, 2007)

제시문 <다>는 “식영정기의 우언 글쓰기와 문학사적 의의”에 수록된 임억령의 〈식영정기〉를 재구성한 글이다. <다>에 삽입된 장주(장자)의 우언(그림자를 피해 도망갔으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고, 그늘 속에 들어가서야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던 인물)과 식영의 개념을 통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논제의 구성

2-1. <가>에 나타난 부판의 '지혜'를 요약하고 <나>의 한 인물에 적용하시오. (300±30자)

이 문항은 지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할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가>에 수록된 <부판전>에는 부판이라는 별개의 행동 습성이 나타나 있다. 가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올리는 습성, 높은 곳에 오르기 좋아하는 습성이 그것이다. 이는 인간의 습성을 풍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자면 전자는 끝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후자는 끝없는 출세에 대한 욕망이 된다. 부판은 <나>의 '조'에 적용될 수 있다. 조는 세무서 직원이었다가 열심히 공부하여 세무서장이 된 인물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고, 지위도 점차 높아진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에 대해 단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서류가 미결함에 쌓일 정도로 버거운 일에 시달리는데, 여전히 그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끝없는 출세에 대한 욕망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2. <나>와 <다>에 삽입된 우언에서 보이는 운명에 대한 관점을 '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기술하고, 각 인물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논하시오. (600±60자)

이 문항 또한 지문의 관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할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나>와 <다>에는 우언이 하나씩 삽입되어 있다. 손금을 그려가면서 성공한 소년의 우화와, 그림자를 피해 도망갔으나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늘 속에 들고서야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던 어떤 인물의 우화가 그것이다. 이는 '조'와 '선생'의 운명에 대한 관점 및 삶의 태도와 연관되는데 손금을 그리던 소년의 우화는 '운명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조에 대응하며, 그림자를 피하려는 사람의 우화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운명에 순응할 때 비로소 삶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선생에 대응한다.

한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조'의 시각과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응해야 한다는 '선생'의 시각은 대립되는 면이 있다. 조는, 선생의 태도에 대해 운명은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선생과 같이 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논할 수 있고, 선생은 조의 태도에 대해 운명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은 잘 나가는 듯이 보일지라도 언제라도 새로운 운명의 흐름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라 논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부판의 지혜(반어적, 어리석은 행동)와 인간의 욕망을 연계지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함】</p> <p>① 길 가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등에 짐 → 소유에 대한 욕망</p> <p>② 높은 곳에 오르기 좋아함 → 출세에 대한 욕망</p> <p>【인물에 대한 적용】</p> <p>③ '조'에 적용할 것.</p> <p>④ 부판의 소유에 대한 욕망을 '조의 부에 대한 욕망'에 연관시킴.</p> <p>⑤ 부판의 출세에 대한 욕망을 '조의 출세에 대한 욕망'에 연관시킴.</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였으나 ④, ⑤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논리적 구성)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정서법)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연에 나타난 운명에 대한 관점의 파악】</p> <p>① <나> 우연의 핵심 : 나쁜 손금을 좋게 파면서 노력하여 성공하였듯이,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p> <p>② <다> 우연의 핵심 : 그림자가 늘 따라 붙듯이 운명은 피할 수 없고, 그늘속에 들어가면 사라지듯이 순응함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다.</p> <p>【조와 선생의 삶의 태도】</p> <p>③ '조'의 삶의 태도 : 나쁜 손금을 좋은 손금으로 파면서 성공한 우화처럼, 열심히 노력하여 세무서 직원에서 세무서장으로 출세할 수 있었고 검은 얼굴도 윤곽하게 바뀔 수 있었다.</p> <p>④ '선생'의 삶의 태도 : 그림자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늘로 들어와서 그림자를 쉬게할 수 있었듯이, 선생도 운명의 흐름을 타고 속세를 벗어나 지금 산림에 들어와 있다.</p> <p>【서로의 태도에 대한 논함】</p> <p>⑤ '조'의 시각에서 '선생'을 볼 때 : 인생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선생처럼 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 논할 수 있다.</p> <p>⑥ '선생'의 시각에서 '조'를 볼 때 :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그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명의 한 때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며, 운명의 또다른 흐름이 오면 그대도 운명의 급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논할 수 있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 ⑥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 ⑥ 중 하나를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개가 부족하고, 논리적 구성 및 정서법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3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4개 이상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2-1.

부판의 지혜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등에 올리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것'과 '높은 곳에 오르길 좋아하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과 출세욕을 풍자하고 있다. 이 두 속성은 <나>에 나온 '조'의 삶에 적용된다. 조는 세무서 직원에서 시작하여 세무서장이 된 인물인데, 현재 부를 축적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실재 없이 일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판이 지닌 두 속성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323자)

2-2.

<나>의 우연은 손금이 나뉘던 친구가 손톱으로 좋은 손금을 그려 성공한다는 것이고, <다>의 우연은 그림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그늘에서 그림자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우연은 손금을 인위적으로 그림으로써 성공한다는 내용을 통해 운명은 개척 가능한 것이란 관점을 보여주고, <다>의 우연은 그림자는 그늘 아래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인간은 운명에 순응할 때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관점을 보여준다.

조의 삶의 태도는 <나>에 나타난 우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믿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선생의 삶의 태도는 <다>의 우화와 닮아있다. 선생은 운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늘 속에서 쉬라는 우화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가 산림에 들어가 머무는 행위는 운명을 긍정하며 그늘로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의 시각에서 논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조의 시각에서는 운명에 쉽게 순응하는 선생의 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삶으로 비칠 수 있으며, 운명의 큰 흐름을 보고 있는 선생의 시각에서는 조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일 뿐 언제라도 급변하는 운명의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645자)